2005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제 1 교시 언 어 영 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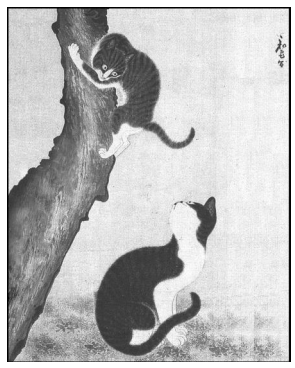
성명		수험번호						3					1

○ 먼저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써 넣고, 또 수험 번호,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1점과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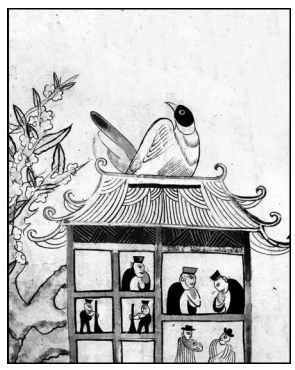
1번부터 6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이 전시회에서 두 사람이 감상하고 있는 민화를 순서대로 연결한 것은? [1점]

㉠

㉡ 

㉢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2. (물음) 이 강좌를 바탕으로 노래 가사를 만들 때, 강사의 의도를 가장 잘 반영한 것은?

① 신비한 요정의 나라, 우리 모두 갈 수 있어.
함께 꿈꾸어 봐요. 아름다운 세상을.

② 동화의 나라, 원하는 건 무엇이나 볼 수 있어.
숨어 있는 요정들이 밤이면 눈을 뜨는 신비한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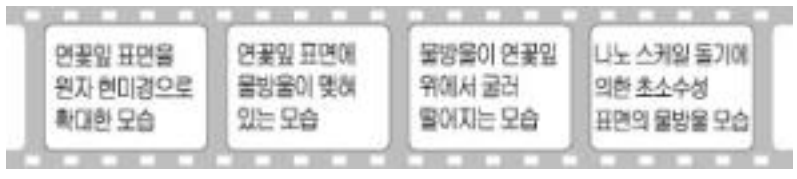
③ 두 눈을 감아요. 네 머리 위에 네 잎 클로버.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일 거야.
조용히 속삭여 봐. 비밀의 주문을.

④ 아기의 첫 웃음이 부서져 요정이 되었네.
아기는 웃음을 찾아 길을 떠나네.
바람이 다가와 말을 걸었네. 내가 너의 웃음이야.

⑤ 우리 앞에 펼쳐진 오늘만이 우리가 살아야 할 세상.
과거는 한낱 꿈일 뿐. 잊어 버려요.

3. (물음) 여성 내레이터의 말이 동영상과 함께 진행된다고 할 때, 제시될 수 있는 <보기>의 장면들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 보 기 〉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⑤ ㉢ → ㉡ → ㉠ → ㉣

4. (물음) 이 강의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1점]

① 다양한 소재의 조화　② 독특한 주제의 구현
③ 시청자의 기호 파악　④ 참신한 소재의 발굴
⑤ 비판적 사회의식의 반영

[5 ~ 6]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5번과 6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5. (물음) '윈도우 효과'를 의도한 사례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영화 '쉬리'를 비디오로 출시하였다.
② 영화 '집으로'를 패러디한 광고를 제작하였다.
③ 영화 '실미도'가 흥행에 성공하자 연장 상영하였다.
④ 영화 '오페라의 유령'에 나오는 음악을 CD로 제작하였다.
⑤ 만화 영화 주인공 '둘리'를 음료회사의 상표로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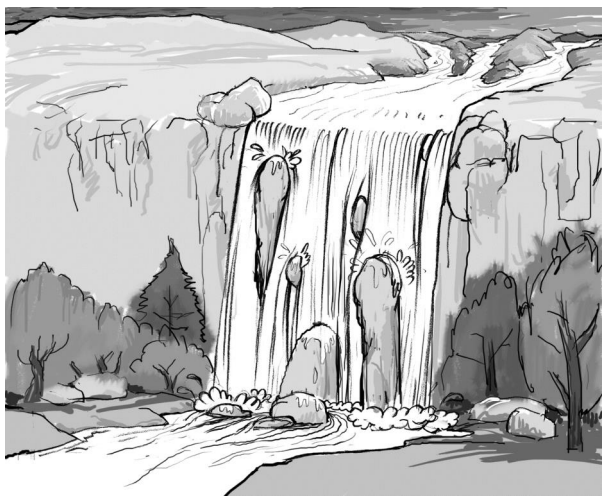
6. (물음) 두 사람의 말하기 특징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진행자는 개인적인 경험을 들어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② 진행자는 용어의 개념 설명과 그 사례 제시를 유도하고 있다.
③ 교수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서 내용을 쉽게 전달하고 있다.
④ 교수는 구체적인 수치 자료를 들어 내용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⑤ 교수는 대상의 효용성을 강조하여 관련자들의 분발을 촉구하고 있다.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7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로그인/회원가입 필요없는 학습자료 무료제공 사이트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7. 다음 장면을 보고 떠오르는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쓰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상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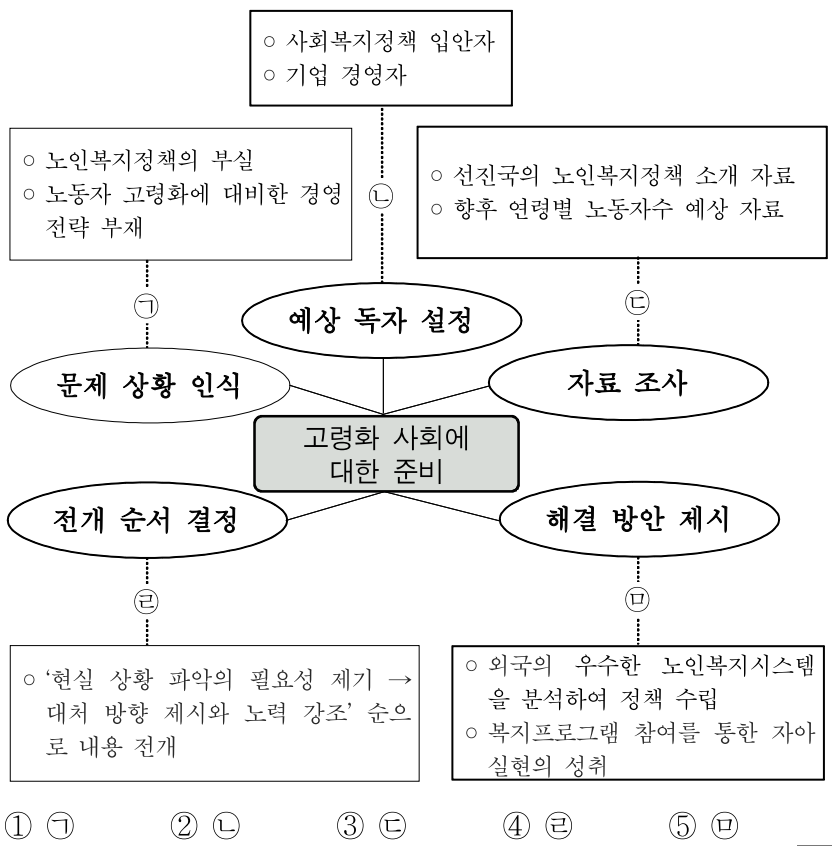


① 여러 물줄기가 모여서 거대한 폭포를 이룸 → 다양한 개인이 모여서 하나의 사회를 이룬다.
② 폭포의 물줄기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짐 → 인생은 순리를 거스르지 않고 살아가는 과정이다.
③ 한 곳을 향해 끊임없이 떨어짐 → 자신이 세운 목표를 향해 부단히 정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④ 돌출 부분에 부딪히기도 함 → 인생을 살다보면 예기치 않은 난관에 맞닥뜨리기도 한다.
⑤ 갈라졌던 폭포의 물줄기가 다시 하나로 합쳐짐 → 인생은 스스로를 성찰하는 행위를 통해 완성된다.

8. <보기>의 주제에 따라 글쓰기 계획을 세워 보았다. 세부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1점]

<보 기>

주제 :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9. <보기>의 개요에 대한 수정 및 보완 방안으로 바르지 <u>않은</u> 것은?

〈 보 기 〉

주제 :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Ⅰ. 서론 : 동아리 활동의 실태
- 형식적으로 이루어짐

Ⅱ. 본론
1. 동아리 활동의 의의
 가. 학생들의 사회성을 높일 수 있음
 나. 학생들의 적성과 취미를 계발함
2. [㉠]
 가. 학교
  (1) 전문 강사가 부족함
  (2) 동아리 활동에 수동적인 자세로 참여함
 나. 학생
  (1) 동아리 활동을 학습 방해 요인으로 생각함
  (2) 동아리 활동을 위한 시설이 미비함
3. 동아리 활동 활성화 방안
 가. 학교 차원의 방안
  (1) 외부 기관과 협조해 전문 강사를 초빙함
  (2) 경제적 지원을 확대함
 나. 학생을 대상으로 한 방안
  (1) 동아리 활동의 학습적 효과를 인식하도록 함
  (2) 동아리 활동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킴

Ⅲ. 결론 :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에 대한 관심을 촉구함

① 주제의 구체성이 떨어지므로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학생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로 수정한다.
② [㉠]은 논지를 발전시키면서 하위 항목을 포괄하기 위해 '동아리 활동이 미진한 원인'으로 진술한다.
③ 'Ⅱ-1'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다. 학교에 대한 학생의 신뢰를 회복함'을 추가한다.
④ 내용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Ⅱ-2-가-(2)'와 'Ⅱ-2-나-(2)'의 위치를 서로 바꾼다.
⑤ 'Ⅱ-3-나-(2)'가 너무 포괄적이므로 '동아리 활동의 중요성을 홍보하여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으로 교체한다.

10. <보기>의 조건을 모두 반영하여 표현한 것은? [3점]

〈 보 기 〉

일반적 관점 : 규범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한다. 일탈은 정해진 규범에서 벗어난 잘못된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탈 행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

[조건]
○ 위의 '일반적 관점'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 구체적 사례를 활용한다.
○ 속담을 적절히 활용한다.

① 일탈이라고 해서 모두 나쁜 것은 아니다. 물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탈은 문제가 된다. 하지만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는 가벼운 일탈 행위는 생활의 활력소가 될 수도 있다.

로그인/회원가입 필요없는 학습자료 무료제공 사이트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② '모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다. 결과가 중요하지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다. 일탈 행위가 당장 문제가 되더라도 결과가 훌륭하다면 굳이 제재를 가할 필요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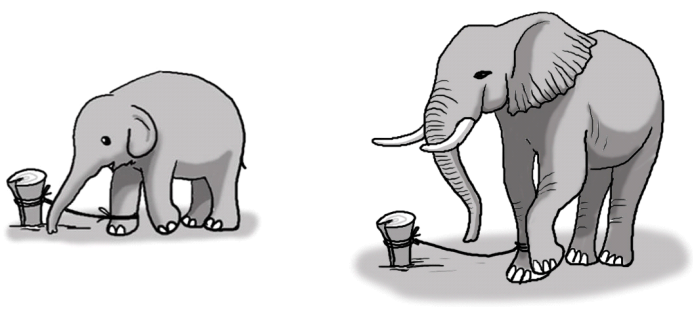
③ 모두 차례를 잘 지키는데 혼자만 편하자고 새치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너도나도 새치기를 하게 되어 질서가 깨지게 된다. 한 마리의 미꾸라지가 웅덩이 물을 흐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④ 모난 돌이 정 맞듯이 박지원의 글은 당대에도 일탈로 인식되어 탄압을 받았다. 하지만 그의 글은 후대에 훌륭한 창조 행위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므로 일탈 행위로 보일지라도 성급하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

⑤ 일탈도 보기에 따라서 긍정적인 면이 있기는 하다. 그렇다고 일탈을 멋으로 생각하며 일탈을 일삼는 일부 젊은이들은 반성해야 한다.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다.'라는 말이 있듯이 젊은이들의 일탈 행위는 경계해야 한다.

11. <보기>에서 착상하여 글을 쓰기 위해 구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 보 기 〉



새끼 코끼리가 조그마한 말뚝에 발이 묶여 있는 모습

코끼리가 성장하여 말뚝을 뽑을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여전히 말뚝에 묶여 있는 모습

↓

글쓰기의 의도 :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깨우치는 글을 쓴다.

①	제목	'네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거인을 깨워라'를 제목으로 삼아 주제를 인상적으로 전달한다.
②	도입 방식	그림의 상황을 현실 상황과 관련지어 화제를 제시함으로써 독자의 흥미를 유발한다.
③	문체	인생 경험이 풍부한 선생님이 제자에게 들려주는 듯한 문체로 서술하여 설득력을 강화하도록 한다.
④	서술 방식	매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과 적극적으로 인생에 도전하는 사람을 대조하여 주제를 강조한다.
⑤	예화 제시	자신의 적성과 무관한 진로를 선택했다가 후회하는 학생의 이야기를 소개하여 독자와 문제의식을 공유하도록 한다.

12. <보기>의 ㉠~㉤을 고치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 고등학교 졸업 후 반 년 만에 선생님께 연락드린 후 댁으로 찾아갔다. 선생님 댁으로 가는 언덕길이 ㉠<u>가파라서</u> 힘들었지만 오랜만에 선생님을 뵙는다는 생각에 마음만은 가벼웠다. 대문 밖에 나와 기다리시던 선생님께서는 ㉡<u>너무 반가워하시며</u> 내 손을 잡아 주셨다. 앞뜰의 ㉢<u>꽃에</u> 물을 주시던 사모님께서도 반겨주셨다. 사모님께서는 반가운 제자가 왔다고 ㉣<u>살찐 생선</u>으로 끓인 먹음직한 찌개로 저녁상을 차려 주셨다. 나는 대학 생활의 시작이 ㉤<u>성공적이였다고</u> 선생님께 말씀드렸다. 선생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

① ㉠의 기본형 '가파르다'는 '르'불규칙 용언이므로 '가팔라서'로 고쳐야 해.

② ㉡에서 '너무'는 부정적인 어감을 지니고 있으므로 '무척'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어.

③ ㉢의 대상은 움직임이 없는 것이기에 '-에'가 아니라 '-에게'로 바꾸는 것이 좋겠어.

④ ㉣의 '살찐'은 동사이기에, 의미에 맞게 형용사인 '살진'으로 바꾸어야겠어.

⑤ ㉤에서 '-였-'은 '-이었-'이 준 형태인데 앞에 '-이-'가 있으므로 '-었-'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어.

13. <보기>의 밑줄 친 어휘의 의미에 대해 <u>잘못</u> 이해한 사람은?

〈 보 기 〉

○ 초행길이라 ㉠<u>길라잡이</u>인 인수가 앞장서고 우리가 그 뒤를 따랐다.

○ 영희는 ㉡<u>눈썰미</u>가 있어서 처음 하는 음식도 맛있게 하는 편이다.

○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네가 왜 참견이냐' 하는 ㉢<u>타박</u>이었다.

○ 그녀와 나는 산에 오르다가 ㉣<u>등걸</u>에 걸터앉아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았다.

○ ㉤<u>귤껍질과 조개껍데기</u>는 분리해서 배출해야 한다.

① ㉠은 문맥으로 보아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② ㉡은 '눈썰미가 좋다', '눈썰미가 남다르다' 등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거야.

③ ㉢과 '반찬 타박이 심하다'고 할 때의 '타박'은 의미가 조금 다르지.

④ ㉣은 '줄기를 잘라 낸 나무의 밑동'이라는 의미니, '그루터기'로 바꾸어 써도 되겠어.

⑤ ㉤으로 보아 양파처럼 무른 물체에는 '껍질'을, 달걀처럼 단단한 물체에는 '껍데기'를 써야 할 거야.

로그인/회원가입 필요없는 학습자료 무료제공 사이트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14. <보기>를 이용하여 국어의 문장 표현에 대해 발표 준비를 했다.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ㄱ. 철수는 대전에 갔다.
ㄴ. 철수는 대전에 안 갔다.
ㄷ. 철수는 대전에 가지 않았다.
ㄹ. 철수는 대전에 갔지 않아?
ㅁ. 철수는 대전에 못 갔다.
ㅂ. 철수는 지금 공부한다.

① ㄴ은 ㄱ의 부정으로, 서술어 앞에 '안'을 넣어 만든 짧은 부정문이다.
② ㄷ은 ㄱ의 부정으로, 용언의 어간에 어미 '-지'를 붙이고 뒤에 '아니하다(않다)'를 써서 만든 긴 부정문이다.
③ ㄹ은 부정문이 아니라, ㄱ에 드러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 의문문이다.
④ ㅁ은 ㄴ과 달리 행동 주체의 사정이나 외부의 요인에 의해 그 행위가 일어나지 못함을 드러내는 짧은 부정문이다.
⑤ ㅂ의 '공부하다'와 같이 '체언+-하다'로 결합된 경우의 짧은 부정문은 '안 체언+-하다'의 형태가 된다.

[15～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 부분의 줄거리] 정유재란으로 헤어졌던 최척과 아내 옥영은 3국(일본, 중국, 조선)을 헤맨 끝에 중국에서 다시 만나 둘째 아들 몽선을 낳는다. 그 후 최척은 전쟁에 나갔다가 헤어졌던 큰아들(몽석)을 만나서 함께 조선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 뒤 옥영은 남편을 찾아 둘째 아들 내외(몽선, 홍도)를 데리고 조선으로 향한다.

그날 늦은 저녁에 예상치도 못한 마파람이 심하게 불어왔다. 검푸른 파도가 배보다 높이 솟아올랐고 순식간에 안개가 사방으로 번져 지척을 분간할 수 없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배를 뒤흔드는 바람에 돛은 찢어지고 노는 부러져 나갔다. 그들은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다. 뱃길을 헤쳐 나가는 데 노련한 재주를 가진 옥영도 그 상황에서는 어찌 해볼 도리가 없었다. 몽선 부부는 놀람과 어지럼증에 시달리느라 배 구석에 처박혀 꼼짝 못하는데 옥영은 이리저리 휘둘리는 몸을 세워가면서 홀로 염불을 외웠다.

'부처님, 저희에게 갈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지났을까, 언제 그랬냐는 듯 풍랑이 잦아들기 시작하자 거의 부서지기 일보 직전에 놓인 배는 새까만 바닷물과 어둠을 삼키며 어디론가 흘러갔다. 기진맥진한 세 사람은 목표도 없이 떠가는 배에 몸을 싣고 있었다.

그들은 새벽 동이 틀 무렵 어느 작은 섬에 겨우 닿았다. 파손된 배를 고치느라 머물고 있던 어느 날 기이한 모습을 한 배 한 척이 홀연히 모습을 드러내었다.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낀 옥영은 몽선 내외를 불러 배 안에 남아있는 물건들을 가리지 말고 자루에 담아 바위 동굴로 옮기게 하였다.

몽선 부부가 서둘러 그것들을 다 옮기고 나서 한숨 돌리려는데 그들의 배는 마치 날아온 듯 섬에 닿았다. 그리곤 그 안에서 시꺼먼 뱃사람들이 쏼라대며 쏟아져 나왔다. 말이나 옷차림으로 보아 그들은 조선인이나 일본인은 아니었다. 아마도 중국 어느 변방의 말 같았는데 병기는 지니지 않았으나 저마다 흰 몽둥이를 쳐들고 수리 중인 옥영의 배에 오르더니 화물(貨物)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 옥영이 중국말로 말하였다.

"저는 중국 사람입니다. 고기를 잡으려고 바다에 나왔다가 표류하여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뭘 그리 찾으시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제 배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표류하는 동안에 다 잃었으니까요."

옥영의 배에서 아무 것도 건지지 못한 그들은 옥영을 향해 눈을 부라리며 때리려는 행동을 취했다. 그러더니 해하지는 않고 옥영의 망가진 배를 빼앗아 자기들의 배 뒤꽁무니에 묶어서 끌고 가버리는 것이었다. 그나마 망가진 배라도 있을 때에는 살아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는데 배마저 잃자 허탈에 빠진 옥영은 그대로 땅바닥에 주저앉아 마른 울음을 울 뿐이었다. 바위 동굴에 숨어 있던 몽선과 홍도는 뛰어나와서 사시나무 떨 듯 하는 옥영을 끌어안고 위로했다.

[A] "어머니 걱정 마세요.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갈 수 있을 거예요. 이러다가 어머니의 마음이 상해버린다면 저흰 어떡합니까?"
옥영의 눈동자는 다 풀려있었고 반쯤 정신이 나간 사람 같았다. 그러다가 혼잣말을 하듯 웅얼거렸다.
"저들은 필시 해적들일 게야. 해적들의 거점지가 중국과 조선 사이 어디쯤 있다던데. 그나저나 이 꼴이 뭐냐. 내가 아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일을 저질렀다가 이런 낭패를 당하고 말았으니 면목이 없구나. 이젠 배마저도 없으니 어찌해야 좋을꼬. 날아서 바다를 건널까, 댓이파리에 의지할까, 구름 뗏목이라도 띄울까 흐흐흐흑……."

바닷가는 순식간에 옥영의 통곡 소리로 그득 찼다. 처량한 그 소리는 겹겹이 밀려드는 파도에 휘말렸다 다시 먼 바다로 쓸려나가곤 하였는데 갈매기들도 그들의 애통함을 아는지 머리 위에서 빙빙 돌며 오래 머물렀다. 한참을 울어댄 옥영은 벌떡 일어서더니 아들 내외가 말릴 새도 없이 절벽으로 마구 기어 올라갔다. 그리고 거기서 바다를 향하여 뛰어내리려 하였으나 급히 뒤쫓아온 몽선의 만류로 주저앉고 말았다.

[B] "얘들아, 나는 죄인이니 말리지 말거라. 자루에 남아 있는 식량으로는 사흘 정도밖엔 못 버틴다. 쓸모없는 늙은이가 어찌 그 귀한 식량을 축내고 있겠느냐."
"어머니, 우리가 떠나오기 전에 이런 말씀 하셨지요? 설혹 불행한 일을 당한다 해도 벗어날 방도가 어찌 없겠느냐고 말입니다. 어머니, 죽는 것은 식량이 다 떨어진 뒤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만약 그 사이에 살아날 길이 생기기라도 한다면 그 얼마나 후회막급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다른 생각은 마십시오. 어머니가 정히 그러시겠다면 저희도 같이 죽겠습니다."

옥영은 몽선과 홍도의 간절한 설득에 자신의 뜻을 접고 부축을 받으며 내려와 바위 동굴에서 잠을 이루었다. 어느덧 새벽 바다에 해의 붉은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 곧이어 바다 밑에서부터 솟아오른 거대한 붉은 꽃잎이 서서히 온 세상을 끌어안아 가는 광경을 우두커니 바라보던 옥영은 아들 내외를 돌아보며 조용히 말하였다.

"얘들아, 내가 기진맥진한 채 잠이 들어서 그랬는지 꿈속에서도 마냥 방황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장육금불께서 또 모습을 드러내셨구나."

그러자 홍도가 몸을 반쯤 일으키며 물었다.

"이번에는 뭐라 하시던가요?"

"그 분께서는 '죽으려 하지 말거라, 잘 살아 남는다면 훗날에 좋은 일을 보게 될 것이니라.' 라고 하시더라. 참 이상도 하시지."

세 사람은 둘러앉아 정성을 다하여 염불을 외며 발원을 하였다.

"부처님이시여! 저희를 가엾이 여기시어 구렁에서 구해주소서."

이틀이 지났을 때였다. 부드러운 봄바람을 가르며 큰 돛을 단

로그인/회원가입 필요없는 학습자료 무료제공 사이트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배 한 척이 섬 앞을 지나가고 있는 게 보였다. 몽선이 깜짝 놀라 어머니를 불러 보게 하였다. 손 차양을 하고서 지켜보던 옥영은 밝게 웃음을 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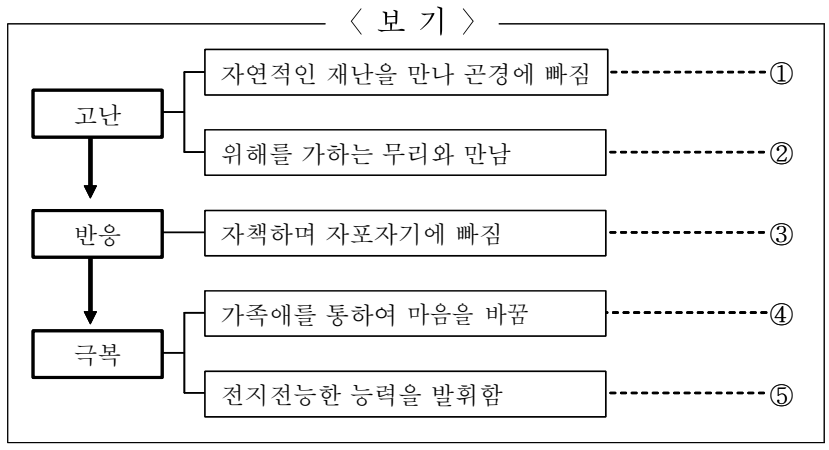
"깃발이나 배 모양새로 보아 저것은 조선 배가 틀림없다.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린 것 같구나."

그들은 서둘러 조선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몽선이 높은 데로 올라가 소리소리 지르며 양팔로 옷가지를 흔들어댔는데 다행히도 그러한 모습이 눈에 띄었던지 ㉠그 배는 몸체를 돌려서 그들이 있는 섬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 조위한, '최척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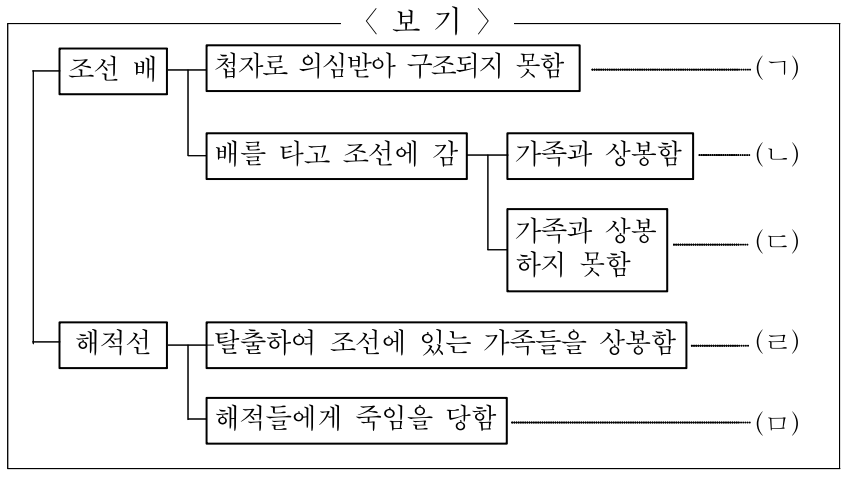
15. 위 글의 내용을 '옥영'을 중심으로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보 기 〉



16. <보기>는 ㉠ 이후의 사건 전개를 여러 방향으로 구상해 본 것이다. (ㄱ)~(ㅁ) 각각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효과를 잘못 설명한 것은?

〈 보 기 〉



① (ㄱ) : 기대했다가 좌절을 맛보는 인물들의 심리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② (ㄴ) : 행복한 결말로서의 구조를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③ (ㄷ) : 인물 간의 새로운 갈등 관계를 예고하여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④ (ㄹ) : 역경을 이겨내는 인물의 의지적인 면모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⑤ (ㅁ) : 계속되는 시련으로 인물의 비극적 처지를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

17. 위 글이 <보기>의 글을 참고하여 쓰였다고 가정할 때, 이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 때 홍도는 가산을 정리해서 조그만 배 한 척을 마련해 가지고 아들 몽진과 며느리를 데리고 중국을 떠났다. 그는 중국 복색, 조선 복색, 또는 일본 복색을 각각 준비했다. 중국 사람을 만나면 중국 사람이라고 속이고, 일본 사람을 만나면 일본 사람이라고 속였다. 두 달 만에 제주도 앞 가가도에 닿았다. 남은 양식은 겨우 7홉뿐이었다.

홍도가 몽진을 보고 말했다.

"우리가 배 안에서 굶어 죽으면 마침내 물고기의 밥이 되고 말 것이니 섬으로 올라가 목을 매어 죽는 것이 낫겠다."

그러나 며느리가 반대했다.

"우리가 한 홉 쌀로 죽을 쑤어 먹으면 하루는 살 수가 있습니다. 하오니 이 쌀을 가지고 7일 동안은 지탱이 되옵니다. 그리고 저 동쪽에 은은히 육지가 뵈는 듯하오니 좀 참고서 삶을 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 그동안에 다행히 지나가는 배를 만나서 육지로 건너 갈 수가 있으면 십중팔구는 살 가망이 있는 게 아닙니까?"

홍도는 이 말을 좇았다. 그리고 5, 6일 지냈다. 하루 먹을 양식이 남았을 뿐이다. 이때 통제사의 사수선이 그 근처에 와 닿았다.

– 홍도전

①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의 구도는 그대로 유지하였다.
② 고난을 극복해 나간다는 이야기의 기본 구조를 그대로 살렸다.
③ 인물 간의 대화 내용을 확장하여 인물들의 고난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④ '어머니, 며느리'에 해당하는 인물의 성격에 변화를 주어 인물 간의 갈등을 심화시켰다.
⑤ 초월적 존재가 꿈에 나타나는 내용을 추가하여 이어질 내용을 암시하고자 하였다.

18. [A] 와 [B] 에서 '옥영'과 '몽선'이 나눈 대화의 특징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1점]

① 옥영은 현실의 처지를 과장해서 말하였고, 몽선은 사태의 심각성을 축소해서 말하였다.
② 옥영은 현실의 상황을 우회적으로 말하였고, 몽선은 현실의 상황을 직설적으로 말하였다.
③ 옥영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여 말하였고, 몽선은 현실 상황을 중심으로 말하였다.
④ 옥영은 현실 상황에 대해 비관적인 태도로 말하였고, 몽선은 낙관적인 태도로 말하였다.
⑤ 옥영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말하였고, 몽선은 주관적인 입장에서 사태를 과장해서 말하였다.

로그인/회원가입 필요없는 학습자료 무료제공 사이트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6 언 어 영 역

[19~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은 대체로 크게 정악과 속악으로 나뉜다. 정악은 왕실이나 귀족들이 즐기던 음악이고, 속악은 일반 민중들이 가까이 하던 음악이다.

개성을 중시하고 자유분방한 감정을 표출하는 한국인의 예술 정신은 정악보다는 속악에 잘 드러나 있다. 우리 속악의 특징은 한 마디로 즉흥성이라는 개념으로 집약될 수 있다. 판소리나 산조에 '유파(流派)'가 자꾸 형성되는 것은 모두 즉흥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즉흥으로 나왔던 것이 정형화되면 그 사람의 대표 가락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독특한 것이면 새로운 유파가 형성되기도 하는 것이다.

물론 즉흥이라고 해서 음악가가 제멋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 곡의 일정한 틀은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변화를 주는 것이 즉흥 음악의 특색이다. 가령 판소리 명창이 무대에 나가기 전에 "오늘 공연은 몇 분으로 할까요?" 하고 묻는 것이 그런 예다. 이때 창자는 상황에 맞추어 얼마든지 곡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서양 음악에서는 어림없는 일이다. 그나마 서양 음악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면 가령 4악장 가운데 한 악장만 연주하는 것 정도이지 각 악장에서 조금씩 뽑아 한 곡을 만들어 연주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국 음악에서는, 특히 속악에서는 연주 장소나 주문자의 요구 혹은 연주자의 상태에 따라 악기도 하나면 하나로만, 둘이면 둘로 연주해도 별문제가 없다. 거문고나 대금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연주할 수 있다. 전혀 이상하지도 않다. 그렇지만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을 바이올린이나 피아노만으로 연주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연주를 하더라도 어색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즉흥과 개성을 중시하는 한국의 속악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시나위다. 현재의 시나위는 19세기말에 완성되었으나 원형은 19세기 훨씬 이전부터 연주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나위의 가장 큰 특징은 악보 없는 즉흥곡이라는 것이다. 연주자들이 모여 아무 사전 약속도 없이 "시작해 볼까" 하고 연주하기 시작한다. 그러니 처음에는 서로가 맞지 않는다. 불협음 일색이다. 그렇게 진행되다가 중간에 호흡이 맞아 떨어지면 협음을 낸다. 그러다가 또 각각 제 갈 길로 가서 혼자인 것처럼 연주한다. 이게 시나위의 묘미다. 불협음과 협음이 오묘하게 서로 들어맞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음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즉흥곡이라고 하지만 '초보자(初步者)'들은 꿈도 못 꾸는 음악이다. 기량이 뛰어난 경지에 이르러야 가능한 음악이다. 그래서 요즈음은 시나위를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한다. 요즘에는 악보로 정리된 시나위를 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것은 시나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다. 악보로 연주하면 ㉠**박제된** 음악이 되기 때문이다.

요즘 음악인들은 시나위 가락을 보통 '허튼 가락'이라고 한다. 이 말은 그대로 '즉흥 음악'으로 이해된다. 미리 짜 놓은 일정한 형식이 없이 주어진 장단과 연주 분위기에 몰입해 그때그때의 감흥을 자신의 음악성과 기량을 발휘해 연주하는 것이다. 이럴 때 즉흥이 튀어 나온다. 시나위는 이렇듯 즉흥적으로 흐드러져야 맛이 난다. 능청거림, 이것이 시나위의 음악적 모습이다.

19. 위 글의 내용을 토대로 알 수 있는 사실은?

① 판소리나 산조는 유파를 형성하기 위하여 즉흥적인 감정을 표출하기도 한다.
② 오늘날 시나위를 잘 계승·보존하기 위해서는 악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③ 속악과 마찬가지로 정악도 악보대로 연주하는 것보다 자연발생적인 변주를 중시한다.
④ 불협음과 협음이 조화를 이루는 시나위를 연주하기 위해서는 연주자의 기량이 출중해야 한다.
⑤ 교향곡을 서양 악기 하나로 연주하는 것이 어색하듯, 시나위를 전통 악기 하나로 연주하는 것도 어색하다.

20. 위 글에서 설명한 '즉흥성'과 관련 있는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점]

〈 보 기 〉

ㄱ. 주어진 상황에 따라 임의로 곡의 길이를 조절하여 연주한다.
ㄴ. 장단과 연주 분위기에 몰입해 새로운 가락으로 연주한다.
ㄷ. 연주자들 간에 사전 약속 없이 연주하지만 악보의 지시는 따른다.
ㄹ. 감흥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위해 일정한 틀을 철저히 무시한 채 연주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1. 위 글을 참조할 때, <보기>의 마지막에 가야금 명인이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보 기 〉

가야금을 전공하는 찬호는 어떤 연주회에서 평소 존경하던 가야금 명인의 연주를 듣고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그 연주회 실황을 녹음한 음반을 구입하여 그대로 따라하려고 연습을 많이 했다. 찬호는 다음에 또 다른 연주회에서 그 명인의 연주를 다시 듣게 되었다. 그런데 똑같은 곡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수없이 반복해 들었던 소리와는 다르게 들리는 것이었다. 연주가 끝난 후 찬호는 명인을 찾아가 여쭈어 보았다.

"선생님. 똑같은 곡을 연주하시는데 지난 번 연주회 때의 소리와 많이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_____"

① 듣는 너의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이야.
② 계속 듣다 보면 같은 소리로 들릴 거야.
③ 협음보다는 불협음을 중시하기 때문이야.
④ 그때그때의 감흥을 담아 연주하기 때문이야.
⑤ 모든 소리는 들을 때마다 새롭게 들리는 거야.

22. 문맥적 의미가 ㉠과 가장 유사하게 사용된 것은?

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다.
② 선생님께 꾸중을 들은 아이는 풀이 죽어 있었다.
③ 양념을 많이 넣으면 재료 원래의 맛이 죽게 된다.
④ 불이 죽은 듯해도 혹시 모르니 꺼진 불도 다시 보아라.
⑤ 시계가 죽는 바람에 오늘은 학교에 지각을 하고 말았다.

로그인/회원가입 필요없는 학습자료 무료제공 사이트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23-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단어 연상법'은 프랜시스 갤턴이 개발한 것으로서, 지능의 종류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은 피실험자에게 일련의 단어들을 또박또박 읽어주면서 각각의 단어를 듣는 순간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를 말하게 하고, 실험자는 계시기를 들고 응답 시간, 즉 피실험자가 응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여 차트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실험은 대개 1백 개 가량의 단어들로 진행했다. 갤턴은 응답 시간을 정확히 ⓐ재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지만, 그렇게 해서 얻은 정보의 양은 거의 없거나 아니면 지능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나) 그런데 융은 이 실험에서 응답 시간이 늦어질 경우 피실험자에게 왜 응답을 망설이는지 물어보는 과정을 추가하였다. 그러자 놀랍게도 피실험자는 자신의 응답 시간이 늦어지는 것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하지 못했다. 융은 거기에 틀림없이 어떤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파고들어갔다. 한번은 말[馬]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어떤 피실험자의 응답 시간이 무려 1분이 넘었다. 자세히 조사해 보니 그 피실험자는 과거에 사고로 말을 잃었던 아픈 기억을 지니고 있었다. 실험이 있기 전까지는 잊고 있었던 그 기억이 실험 과정에서 되살아난 것이다.

(다) 융의 연구 결과 단어 연상의 응답 시간은 피실험자의 정서에서 큰 영향을 받으며, 그 실험법은 감춰진 정서를 찾아내는 데 더 유용하다는 점이 입증되었다. 정신적 연상의 연구를 통해 지능의 종류를 판단하고자 했던 단어 연상 실험이 오히려 그와는 다른 방향, 즉 무의식적인 감정이 빚어내는 효과를 드러내는 데 더 유용하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다. 그동안 갤턴을 비롯하여 그 실험법을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실시했던 연구자들은 지연된 응답의 배후에 있는 피실험자의 정서에 주목하지 않았으며, 단지 응답의 지연을 피실험자가 반응하지 못한 것으로만 기록했던 것이다.

(라) ㉠융이 그린 그래프들은 특정한 단어에 ⓑ따르는 응답자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었다. 이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결론을 얻어낼 수 있었다. 첫째, 대답 과정에서 감정이 생겨난다. 둘째, 응답의 지연은 모종의 인식하지 못한 과정에 의해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다. 하지만 이 기록을 토대로 결론을 내리거나 중요성을 ⓒ따지기에는 너무 일렀다. 피실험자의 의식적 의도와는 별개로 작동하는 뭔가 알지 못하는 지연 행위가 있음이 분명했다.

(마) 당시에 성행했던 심리학 연구나 심리학을 정신의학에 응용하는 연구는 주로 의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따라서 단어 연상법의 심리학에 대한 실험 연구도 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되었다. 하지만 융은 의식 또는 의지의 작용을 넘어서는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여기서 그는 콤플렉스라는 개념을 ⓓ끌어들인다. 융의 정의에 따르면 그것은 특수한 종류의 감정으로 이루어진 무의식 속의 관념 덩어리인데, 이것이 응답 시간을 지연시켰다는 것이다. 이후 여러 차례 실험을 거듭한 결과 그 결론은 사실임이 ⓔ밝혀졌으며, 콤플렉스와 개인적 속성은 융의 사상 체계에서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다.

23.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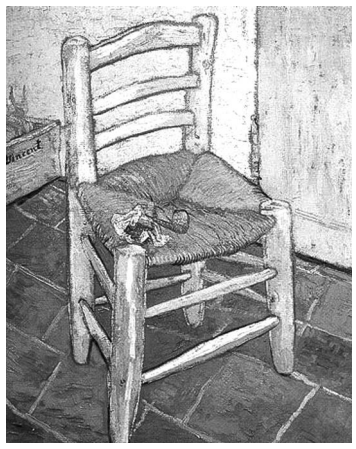
① (가) : 대상이 되는 연구 방법의 진행 과정과 그 한계를 서술하여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② (나) : 기존의 연구 방법이 지닌 문제점을 비판하며 화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③ (다) : 기존의 연구자들이 간과했던 새로운 사실을 찾아낸 융의 실험이 갖는 의의를 밝히고 있다.
④ (라) : 융의 실험을 통해 새롭게 드러난 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⑤ (마) : 새롭게 드러난 심리적 개념을 하나의 용어로 정리하며 논의를 마무리 짓고 있다.

24. 위 글을 읽고 나서 <보기>와 같은 추가 자료를 접한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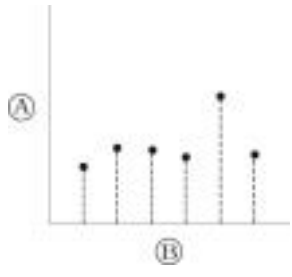
[자료 1] '콤플렉스'는 인간의 행동을 좌우하는 거대한 에너지의 원천으로, 그 자체가 병적인 것은 아니다. 이 에너지를 생산적인 방향으로 사용하는가 아니면 파괴적인 방향으로 사용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는데, 콤플렉스가 생산적 에너지로 작용할 때, 그것을 '위대한 콤플렉스'라고 한다.

[자료 2] 화가 고흐는 죽은 형의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나기 한 해 전 같은 달 같은 날짜에 태어나자마자 죽은 첫 아들과 고흐를 동일시하여 그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였다. 이러한 성장 과정은 고흐로 하여금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느끼게 하였다. 이를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나온 고흐의 작품은 자기만의 것에 집착했던 그의 성향을 잘 반영하고 있다. '반 고흐의 의자'[왼쪽 그림]에 그려진 파이프와 담배는 아버지의 것으로, 어릴 적부터 그토록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어 했던 고흐의 간절한 소망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① 고흐에게는 콤플렉스가 생산적 에너지로 작용하였군.
② 고흐의 독창적 그림 세계는 어릴 적 체험과 관련이 있겠군.
③ 고흐의 부모는 고흐의 콤플렉스를 형성하는 데 큰 작용을 하였군.
④ 고흐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내면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림을 그렸겠군.
⑤ 고흐에게 단어 연상법을 실시했다면 '형'이라는 단어에서 머뭇거렸겠군.

25. ㉠을 다음과 같이 그렸을 때 Ⓐ, Ⓑ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
①	응답 시간	단어
②	단어	응답 시간
③	응답 시간	감정
④	감정	응답 시간
⑤	감정	단어

26. ⓐ ~ ⓔ를 대체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① ⓐ : 측정(測定)하기
② ⓑ : 수반(隨伴)하는
③ ⓒ : 추궁(追窮)하기에는
④ ⓓ : 도입(導入)한다
⑤ ⓔ : 입증(立證)되었으며

로그인/회원가입 필요없는 학습자료 무료제공 사이트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과학이 도전하고 있는 난제 중 하나이다. 영국의 과학 주간지 <뉴사이언티스트>는 지난 특집에서 '생명의 10대 수수께끼'를 다루었다. 이 중 상당수는 해묵은 것들이지만 몇 가지는 오늘날 우리가 생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상(像)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상을 떠받치는 가정들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해 준다.

먼저 '우리는 지금도 진화하는가'라는 물음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어딘지 낯선 느낌을 떨칠 수 없다.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진화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진화를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선 듯한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역시 진화의 흐름에서 열외일 수 없다. 다윈은 진화의 두 가지 메커니즘으로 유전 가능한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을 꼽았다. 그 중에서 변이는 모든 생물들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선택의 측면에서는 분명 과거와 다른 요인들이 많이 개입한다. 가령 과거에는 적자(適者)가 많은 자손을 남겨서 자신의 유전형을 확산했지만, 오늘날에는 생식기술의 발전과 인위선택이라 불릴 수 있는 숱한 요소들이 그동안 자연선택이라 불리던 것을 대체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요소들이 또한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나기는 마찬가지라는 사실이다.

다음으로 '유성생식이 왜 필요한가'라는 물음은 복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꼭 되새겨 보아야 한다. 지구상에 생존하는 다세포 생물 중 99.9%가 유성생식을 한다. 이들은 자신의 후손을 더 많이 퍼뜨리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유성생식의 과정은 효율성 면에서 보면 무척이나 거추장스럽고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그렇기에 오늘날 간편하고 효율적인 복제로 우량 품종을 대량 생산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인간도 미래에는 이런 방법으로 생식을 ⓑ제어할 수 있으리라는 터무니없는 기대가 팽배하고 있다. 하지만 35억 년에 걸친 진화 과정에서 다세포 생물들이 압도적으로 유성생식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많은 학자들은 오늘날 풍부한 생물종이 탄생하고, 지능과 같은 인간적 특성들이 발생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로 유성생식을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간과 같은 지능의 출현은 필연적이었는가'라는 물음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의 출현이 진화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고 생각한다. 즉, 단세포 생물에서 영장류를 거쳐 인간에 도달한 경로를 유일한 생명의 역사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생물학자 '스티븐 제이 굴드'는 "생명이라는 테이프를 되감아 다시 돌리면 인간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유명한 물음을 ⓔ제기한다. ㉡아쉽게도 그 답은 '아니다'이다. 인간은 생명의 역사라는 기나긴 여정에서 목적지가 아니라 한 간이역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수천만 년 전 지구를 지배하던 공룡도 순식간에 멸종했고, 그 빈틈을 비집고 우리의 아득한 선조가 번성할 수 있었듯이 우리도 어느 한순간 공룡의 신세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생명을 둘러싼 수수께끼들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질문들이 계속 변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생명에 대한 우리의 접근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간명하게 말해서, '생명이란 무엇인가?'라고 묻기 위해서는 먼저 생명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생각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토대로 그 물음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27. 글쓴이가 <보기>의 신문 기사를 읽고 나타냈을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보건복지부는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배아복제 연구를 공식 승인했다. 이 관계자는 "연구팀의 배아복제 연구기관의 등록 승인 및 신청에 대해 연구실 현장 실태 점검과 서류 검토 작업 등을 거쳐 최종 승인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이 연구팀은 정부의 관리 체계 내에서 배아복제 연구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①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우리 사회를 더욱 경쟁적으로 몰아갈 것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② 이러한 연구가 전혀 예기치 못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③ 민간 차원의 공식 후원금을 조성하여 연구 진행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④ 이 연구가 지닌 잠재적인 경제 가치를 고려하여 이것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⑤ 현재 이러한 연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므로 이들을 먼저 설득해야 합니다.

28. ㉠의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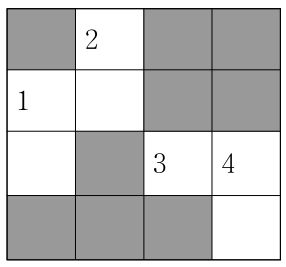
① 고래는 비록 물속에서 살지만 어류가 아니라 포유류이기에 알이 아니라 새끼를 낳아 기른다.
② 암사자는 힘이 강한 수사자를 중심으로 집단 생활을 하면서 먹이가 필요하면 힘을 모아 사냥을 한다.
③ 흔히 미혼자가 오래 살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기혼자가 10년 정도 더 오래 산다.
④ 공작은 포식자의 눈에 잘 띄어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컷의 관심을 끌기 위해 화려한 깃털을 자랑한다.
⑤ 부모의 유전자를 반씩 닮아 태어나는 개체는, 세대가 내려갈수록 종이 다양해져서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강해진다.

29. ㉡과 관련하여 추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① 글쓴이는 인간이 진화 과정의 최종 단계가 아니라는 생각에 동의한다.
② '스티븐 제이 굴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와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
③ 인간은 생명의 역사에서 아주 우연적인 조건에 의해 출현했을 가능성이 높다.
④ 단세포 생물에서 인간으로 진화한 속도는 느렸지만 앞으로는 점차 빨라질 것이다.
⑤ 인간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든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다.

로그인/회원가입 필요없는 학습자료 무료제공 사이트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30. ⓐ~ⓖ를 이용하여 다음의 '십자말 맞추기'를 해결할 때, 필요하지 <u>않은</u> 것은? [1점]



<가로 풀이>
1. 깊이 관심을 두지 않고 예사로이 보아 내버려 둠
3. 일정한 방침에 따라 제한하거나 제약함

<세로 풀이>
1. 그렇다고 보거나 여김
2. 그 정도에 지나지 못함을 나타내는 말
4. 억눌러서 따르게 함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31~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마음이 어지러운 날은
㉠<u>수</u>를 놓는다.

[A]
금실 은실 청홍(靑紅)실
따라서 가면
가슴속 아우성은 절로 갈앉고

처음 보는 수풀
정갈한 자갈돌의
강변에 이른다.

남향 햇볕 속에
수를 놓고 앉으면

세사 번뇌(世事煩惱)
무궁한 사랑의 슬픔을
참아 내올 듯

머언
극락정토(極樂淨土) 가는 길도
보일 상 싶다.

- 허영자, '자수'

(나)
<u>상한 갈대</u>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u>뿌리 깊으면야</u>
밑둥 잘리어도 새순은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u>부평초잎</u>이라도
<u>물 고이면</u>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u>등불</u>은 켜지듯
<u>가자 고통이여</u> 살 맞대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

고통과 설움의 땅 훨훨 지나서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u>바람</u>은 불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u>마주 잡을 손 하나</u> 오고 있거니

- 고정희, '상한 영혼을 위하여'

(다)
슬픔을 위하여
슬픔을 이야기하지 말라.
오히려 슬픔의 새벽에 관하여 말하라.
첫아이를 사산(死産)한 그 여인에 대해 기도하고
불빛 없는 창문을 두드리다 돌아간
그 청년의 애인을 위하여 기도하라.
슬픔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의
새벽은 언제나 별들로 가득하다.
나는 오늘 새벽, 슬픔으로 가는 길을 홀로 걸으며
평등과 화해에 대하여 기도하다가
㉡<u>슬픔이 눈물이 아니라 칼이라는 것을 알았다</u>.
이제 저 ⓓ<u>새벽별</u>이 질 때까지
슬픔의 상처를 어루만지지 말라.
우리가 슬픔을 사랑하기까지는
슬픔이 우리들을 완성하기까지는
슬픔으로 가는 새벽길을 걸으며 ⓔ<u>기도</u>하라.
슬픔의 어머니를 만나 기도하라.

- 정호승, '슬픔을 위하여'

3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① (가)와 (나)에는 타인의 아픔에 대한 관심이 드러나 있다.
② (가)와 (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③ (나)와 (다)는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④ (가), (나), (다) 모두 심리적 갈등과 그로 인한 고통을 드러내고 있다.
⑤ (가), (나), (다) 모두 극한 상황 앞에서 도피하려는 태도를 형상화하고 있다.

32. ㉠의 시적 기능과 가장 유사한 것은? [1점]

① ⓐ ② ⓑ ③ ⓒ ④ ⓓ ⑤ ⓔ

33. [A]가 <보기>를 바꿔 쓴 것이라고 가정할 때, 바꿔 쓰는 과정에서 기대했음직한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보 기 〉

부지런히
바늘을 움직이면
가슴속 고뇌는 잠잠해지고

어느덧 마음은
고요하고 정갈한
평화의 세계에 다다른다.

① 공간 이동에 따른 심리 변화를 드러낸다.
② 배경의 분위기를 희망적인 것으로 바꾼다.
③ 감각적 표현으로 화자의 정서를 구체화한다.
④ 기도하는 어조로 소망의 간절함을 드러낸다.
⑤ 상황에 대한 화자의 대응 방식을 다르게 한다.

로그인/회원가입 필요없는 학습자료 무료제공 사이트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34. <보기>를 참고로 할 때, 발상과 표현이 ㉡과 가장 유사한 것은?

〈 보 기 〉

'슬픔'은 곧 '눈물'이라는 일반적 인식과 달리 ㉡에서는 '슬픔'이 긍정적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겉으로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 심오한 의미를 담는 발상과 표현은 시를 참신하고 매력 있게 만들 수 있다.

① 벼는 서로 어우러져 / 기대고 산다. / 햇살 따가워질수록 / 깊이 익어 스스로를 아끼고 / 이웃들에게 저를 맡긴다. - 이성부, '벼'

② 하늘을 생각하다 잠이 들면 나는 하늘을 나는 한 마리 새, 연두색 부리로 꿈을 쪼으며 하늘을 집으로 삼은 따뜻하고 즐거운 새 - 이해인, '긴 두레박을 하늘에 대며'

③ 접동새, 우는 접동새야! / 네 우지 말아라 / 무슨 원한이 그다지 골수에 / 사무치길래, / 밤중만, 빈 달에 피나게 울어 / 남의 애를 끊느니. - 신석초, '바라춤'

④ 이별은 미(美)의 창조(創造)입니다. / 이별의 미(美)는 아침의 바탕[質] 없는 황금(黃金)과 밤의 올[絲] 없는 검은 비단과 죽음 없는 영원의 생명과 시들지 않는 하늘의 푸른 꽃에도 없습니다. - 한용운, '이별은 미의 창조'

⑤ 가난이야 한낱 남루(襤褸)에 지나지 않는다. / 저 눈부신 햇빛 속에 갈매빛의 등성이를 드러내고 서 있는 / 여름 산(山) 같은 / 우리들의 타고난 살결, 타고난 마음씨까지야 다 가릴 수 있으랴. - 서정주, '무등을 보며'

35. <보기>의 상황을 바탕으로 (나)를 창작했다고 할 때, 소재와 형상화된 시구의 연결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경기도 ○○에 사는 김보람 양은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있는 아버지, 그리고 어린 세 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 아버지는 오래 전 한쪽 눈을 잃었으며 남은 눈마저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김 양은 장차 의사가 되어 아버지와 같은 불쌍한 환자들을 돕고 싶어 한다. 김 양은 지난해 돌아가신 어머니 대신 아버지와 어린 동생들을 돌보고 집안 살림을 맡아 한다. 수업이 끝나면 집에 돌아와 청소와 설거지를 하고, 뒷산에 올라 땔감을 져 오는 것도 김 양 몫이다. 하지만 김 양은 고통스러울수록 열심히 공부하며 일부러 웃음을 보이려고 애쓴다. 김 양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 실질적 도움을 주는 이웃 사람들의 격려도 큰 힘이 되고 있다.

최근 김 양에게는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동아리 선배 이해란 양은 김 양의 의지가 되는 든든한 벗이다. 김 양은 이 양과 함께 미래를 이야기하며 평소 꿈꾸어 온 훌륭한 의사가 되기 위해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보기>의 상황		시구
① 가련한 처지의 김 양	→	'상한 갈대'
② 인내하며 노력하는 김 양의 태도	→	'뿌리 깊으면야'
③ 이웃들의 도움	→	'물 고이면'
④ 의사가 되려는 김 양의 소망	→	'가자 고통이여'
⑤ 벗과 같은 선배	→	'마주 잡을 손 하나'

[36～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인생이 너무나 불행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어머니를 모실 수 있다는 점만은 행복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생(生)을 받은 우리의 찬송은,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첫째 우리들의 어머니 위에 지향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려서 이미 어머니를 잃고, 클수록 커지는 동경의 마음을 채울 수 없는 아들의 신세가 이 세상에서 다시 볼 수 없는 큰 불행이라면, 어려서는 어머니의 품 안에 안기고, 커서는 어머니의 덕을 받들어 모자가 한 가지로 늙는 사람의 팔자는, 이 세상에서는 다시 구할 수 없는 큰 행복일 것입니다. 아니지요. 이런 구구한 경우를 떠나서도 모든 사람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왔다는 단순한 사실, 그것이 벌써 한없이 행복스러운 일입니다.

생각만이라도 해 보십시오. 만일 어머니라 하는 이 아름답고 친절한 종족(種族)이 없다면, 대체 이 세상은 어떻게나 되어 갈까요? 이 괴로운 세상을 찬란하게까지 장식하고 있는 모든 감정, 가령 말하자면 저 ㉠망아적(忘我的) 애정, 저 심각한 자비, 저 최대한의 동정, 끝없이 긴밀한 연민, 저 절대한 관념— 이 모든 것은 이곳에서 사라져 버리고야 말 터이지요.

그리하여 이 때, 이 세상이 돌연히 한없이도 어두워지고 우울해지고, 고달파질 터이지요. 참으로 어머니와 아들의 결합과 같이 힘차며, 순수하며, 또 신비로운 결합은 어떠한 인간 관계 속에서도 찾아 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향이라 부를 만한 것이 있다면 새로 생긴 자에 대해 그에게 영양을 제공하고, 그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어머니야말로 참된 향토(鄕土)가 아닐까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성장하여 가는 아동에 있어서도 어머니는 영원히 그들의 괴로워할 때의 좋은 피난소이며, 그들의 즐거워할 때의 좋은 동감자(同感者)입니다.

어린아이가 어찌하여야 할 바를 모를 때, 그는 반드시 어머니를 향해 웁니다. 아프고 괴로워 위안이 필요할 때, 그는 바삐 어머니의 무릎 위로 기어갑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의 신뢰는 참으로 한이 없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도움이 있을 것을, 어머니에게는 귀의심이 있고 이해력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까닭입니다. 사실에 있어서 어머니의 ⓐ손이 한번 가기만 하면 모든 장애물은 가벼웁게 무너지고, 모든 것은 좋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인의 어머니에게 대한 신빙(信憑)이 이에 못할 수 없겠지요.

어머니가 생존하여 계시는 동안 우리는 고요히 웃는 마음의 고향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외로울 수 없으며, 우리는 결코 어두움 속에 살 수 없습니다.

참으로 어머니는 저 하늘에 빛나는 맑은 별과 같이도 순수합니다. 그것이 무에 이상할 것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어머니 피로부터, 어머니 정신으로부터, 어머니의 진통으로부터 나온 까닭이올시다. 어머니는 [㉡]

어린아이는 어머니에게 말하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가 자기 나라 말을 가리켜 모어(母語)라 부르는 것은, 이 점에 있어서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아이는 어머니에게서 도덕과 지식 일반의 최초의 개념, 저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지극히도 자극적인 노래와 유희를 처음 배우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결합에 있어서 어머니와 아들 사이와 같은 그렇게도 긴밀한 인간적 결합은 실로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 김진섭, '모송론(母頌論)'

로그인/회원가입 필요없는 학습자료 무료제공 사이트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나) 호미도 놀히언마ᄅᆞ는
낟ᄀᆞ티 들 리도 업스니이다.
아바님도 어이어신마ᄅᆞ는
위 덩더둥셩
어마님ᄀᆞ티 괴시리 업세라.
아소 님하.
어마님ᄀᆞ티 괴시리 업세라.
– 작자 미상, '사모곡(思母曲)'

(다) 천 리 먼 고향 산은 만 겹 봉우리로 막혔으니, 千里家山萬疊峯
가고픈 마음은 오래도록 꿈 속에 있네. 歸心長在夢魂中
한송정 가에는 외로운 둥근 달이요, 寒松亭畔孤輪月
경포대 앞에는 한 줄기 바람이로다. 鏡浦臺前一陣風
모랫벌엔 백로가 언제나 모였다 흩어지고, 沙上白鷺恒聚散
파도 위엔 고깃배가 오락가락 떠다닌다. 波頭漁艇各西東
어느 때 강릉 땅을 다시 밟아서, 何時重踏臨瀛路
색동옷 입고 어머님 곁에서 바느질할꼬. 綵服斑衣膝下縫
– 신사임당, '사친(思親)'

36.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와 달리, (나)에는 대상을 예찬하는 태도가 나타나 있다.
② (나)와 달리, (다)에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나 있다.
③ (가)와 달리, (나), (다)는 특정한 청자를 설정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④ (가), (다)와 달리, (나)는 화자가 실제로 체험한 일을 제재로 하고 있다.
⑤ (나), (다)와 달리, (가)는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다.

37. (가)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경어체를 통해 강연하듯이 서술하여 호소력을 높이고 있다.
② 비유의 방법으로 모성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③ 비교 대조의 방법으로 대상이 지닌 속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④ 묻고 답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글쓴이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⑤ 친숙하지 않은 한자어와 어투를 사용해 예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다.

38.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1점]
① '위 덩더둥셩'과 같은 여음을 사용하여 음악적 효과를 강화하고 있군.
② 점층적인 표현을 통해 어머니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군.
③ '호미'와 '낫'이 다 같이 지니고 있는 '날'은 어버이를 뜻하는 말이겠군.
④ 부모의 사랑을 농기구에 비유한 데서 작자의 서민적 정서를 느낄 수 있군.
⑤ '호미'와 '낫'이 지닌 예리함의 차이를 통해 부모의 사랑의 정도 차이를 부각시키고 있군.

39. (다)를 지은 이후에 <보기>의 작품을 지었다고 할 때, 시적 상황의 변화에 따른 심정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 보 기 〉

늙으신 어머님을 강릉에 두고 鶴髮慈親在臨瀛
이 몸 혼자 서울로 떠나는 마음 身向獨去長安情
돌아보니 고향은 아득도 한데 回首北坪時一望
흰 구름 날고 산은 저무네 白雲飛下暮山情
– 신사임당, '대관령을 넘으면서'

① 현실이 힘들더라도 참고 살다 보면 어머니를 다시 뵐 수 있겠지.
② 어머니 곁을 떠나는 안타까운 내 마음을 흰 구름이 달래 주는구나.
③ 어머니를 떠나온 지 오래건만 소식조차 전하지 못하니 불효가 따로 없구나.
④ 어머니와 작별한 후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 그리움이 날마다 더해만 가는구나.
⑤ 그렇게 그리워하던 어머니를 뵈었지만 다시 떠나게 되니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구나.

40. ㉠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은?
① 반갑던 님의 글월 설움될 줄 알았으리
줄줄이 흐르는 정 상기 아니 말랐도다.
받들어 낯에 대이니 배이는 듯 하여라. – 정인보, 자모사5
② 바릿밥 남 주시고 잡숫느니 찬 것이며
두둑히 다 입히고 겨울이라 엷은 옷을
솜치마 좋다시더니 보공되고 말아라. – 정인보, 자모사12
③ 안방에 불 비치면 하마 님이 계시온 듯
닫힌 창 바삐 열고 몇 번이나 울었던고
산 속에 추위 이르니 님을 어이 하올고. – 정인보, 자모사16
④ 이 강이 어느 강가 압록이라 여짜오니
고국 산천이 새로이 설워라고
치마끈 드시려 하자 눈물 벌써 굴러라. – 정인보, 자모사37
⑤ 설워라 설워라 해도 아들도 딴 몸이라
무덤 풀 욱은 오늘 이 살 붙어 있단 말가
빈말로 설운 양 함을 뉘나 믿지 마옵소. – 정인보, 자모사40

41. 앞 문장의 내용으로 미루어,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① 우리의 뿌리인 것입니다.
② 우리의 샘물인 것입니다.
③ 우리의 기둥인 것입니다.
④ 우리의 거울인 것입니다.
⑤ 우리의 쉼터인 것입니다.

42. <보기>를 참조할 때, ⓐ가 들어간 표현 중 관용어로 볼 수 <u>없는</u> 것은? [1점]

〈 보 기 〉

관용어는 둘 이상의 낱말이 결합하여 원래의 사전적 의미와 무관한 제3의 새로운 뜻을 나타내는 의미 단위이며, 결합 형식이 고정성을 지니는 특징이 있다. 여기서 '제3의 새로운 뜻'이란, '손'과 '가다'가 결합하여 '힘이나 능력이 미치다'라는 의미가 생성되는 것을 말하며, '고정된 형식'이란 '손이 가다'를 '발이 가다'나 '다리가 가다'처럼 다른 낱말로 대체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① 이 약은 아이의 <u>손이 닿지</u> 않는 곳에 둬야 한다.
② 동생은 아버지께 잘못했다고 <u>손이 닳도록</u> 빌었다.
③ 나는 축구 중계 방송을 <u>손에 땀을 쥐고</u> 지켜보았다.
④ 그녀는 입원한 친구 때문에 책이 <u>손에 잡히지</u> 않았다.
⑤ 아버지는 그 일에서 <u>손을 떼고</u>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

로그인/회원가입 필요없는 학습자료 무료제공 사이트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43～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세계사는 유목 민족과 정주 민족 간 투쟁의 역사이다. 유목 민족은, 농경을 주업으로 하여 문명에서 앞서간 정주 민족에게 결국 패배하였다. 유럽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용맹한 유목 민족인 훈족 역시 역사에서 흔적 없이 소멸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새로운 유목 민족이 새 역사를 쓰고 있다. 이들은 과거의 기마병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속도로 세계 거의 모든 나라의 국경을 무너뜨리고 끊임없이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신유목 시대를 열고 있는 종족이 바로 21세기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디지털 노마드*이다. 프랑스의 지성 자크 아탈리는 '21세기는 정보기술(IT)을 갖추고 지구를 떠도는 디지털 노마드의 시대'라고 예언했다.

신유목 시대는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구하는 세계화와 관련이 있다. 국경을 넘나드는 세계화 시대의 돈과 노동력은 철저하게 유목화한다. 유목민이 말을 타고 새로운 영토를 찾아 끊임없이 이동했듯 21세기의 자본은 더 높은 수익률을, 노동력은 더 나은 삶을 모색하며 쉬지 않고 움직인다. 현대의 유목은 물리적인 현실 공간을 넘어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된다. 프랑스의 철학자 피에르 레비는 '현대인에게 움직인다는 것의 의미는 더 이상 지구 표면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신유목 시대의 두 축은 사이버 세계와 유목 행위이다. 과거 유목민이 오아시스라는 허브*를 통해 생존의 네트워크를 만들었듯, 디지털 노마드는 인터넷에서 생존의 조건을 확보한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다양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유비쿼터스*는 새로운 유목민의 환경이다. 유목민은 성을 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을 떠난다. 조상과 자신이 출생한 공간은 낡은 사진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 그들은 모국어를 버리고 이방에서 외국어를 쓰며 생활한다.

신유목 시대에는 국가주의가 퇴조하고 세계시민주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세계화와 민족주의 사이의 갈등과 불확실성이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지구촌은 남북격차*에 디지털 격차까지 겹쳐 빈익빈부익부 구조가 더욱 심해지고 고착될 수도 있다. 남쪽 세계에 속한 인구는 디지털 노마드로 변신을 꾀하기는커녕, ㉡생존이 가능한 공간을 찾아 흙먼지 길을 전전해야 하는 가난한 유랑민으로 남게 될 지도 모른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바로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체적 유대를 회복하는 데 있다. 공동체적 유대의 기본 정신은 '박애와 관용'이다. 과학기술과 네트워크에 인간적 온기를 불어넣을 때, 인간을 소외시켰던 바로 그 과학기술과 네트워크는 신유목 시대의 미래를 열어가는 정신적 토대로 전환될 수 있다.

1,600여 년 전 세계를 휩쓸었던 유목 민족인 훈족은 새로운 길을 찾지 못하고 역사에서 사라졌다. 21세기의 새로운 유목민도 비슷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도처에서 자라고 있는 희망의 싹을 잘 키운다면, 디지털 노마드는 인류 역사의 위대한 종족으로 남게 될 수 있을 것이다.

- **노마드(nomad) : 유목민.**
- **허브(hub) : 중심에 위치하여 바큇살 모양으로 다른 부분을 접속하는 중계 장치.**
- **유비쿼터스(Ubiquitous) : 두루누리. 정보 사용자가 네트워크나 컴퓨터를 의식하지 않고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 통신 환경.**
- **남북격차 : 북반구에 있는 나라와 남반구에 있는 나라 사이의 불균형한 경제 관계.**

43.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점]

① 역사적으로 유목 민족과 정주 민족은 갈등을 겪어 왔다.
② 남북의 경제적 격차로 인해 디지털 노마드가 늘고 있다.
③ 디지털 노마드의 생활 양식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④ 과거의 유목민에게 오아시스는 생존의 중요한 조건이었다.
⑤ 유비쿼터스는 디지털 노마드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환경이다.

44. 아래는 과거의 유목민과 디지털 노마드의 특성을 비교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과거의 유목민	디지털 노마드
①	이동의 목표	새로운 영토 확보	수익률과 삶의 질 향상
②	이동의 수단	말[馬]	정보기술
③	활동 영역	현실 공간	사이버 공간
④	정치적 경향	국가주의	세계시민주의
⑤	주된 이동 요소	인간	자본과 노동

45. 위 글의 글쓴이가 <보기>에 대해 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최근 사이버 공간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들은 네트워크 세계에서 아이디(ID)나 아바타로 활동한다. 익명성을 보장받는 사이버 세계에서 그들은 현실 세계와는 다른 삶의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과정에서 현실적 인간 관계의 틀이 허물어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다.

① 네트워크의 특성으로 인한 정체성의 문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② 정체성 문제의 원인은 사이버 공간으로의 접근이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제해야만 네트워크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③ 네트워크는 사회적 성격보다는 개인적 성격이 강합니다.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기보다는 개인적 노력을 통해 정체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④ 정체성의 혼란을 네트워크 자체의 문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네트워크는 폭넓은 인간 관계를 통해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⑤ 현실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서 네트워크 상의 정체성 문제로 망설이고만 있으면 상황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현실적 이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46. ㉠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를 <보기> 에서 모두 고른 것은?

〈 보 기 〉

ㄱ. 전자 회사에 취직하여 최첨단 광통신 장비에 들어갈 부품을 만드는 노동자
ㄴ. 한국에서 인터넷을 통해 미국의 주식 시장에 실시간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
ㄷ. 해외로 출장 가서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회사원
ㄹ. 국제민간기구에 가입하여 제3세계를 돌며 인류 평화를 위해 봉사하는 젊은이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로그인/회원가입 필요없는 학습자료 무료제공 사이트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47. ㉡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한 것은? [1점]

① 지록위마(指鹿爲馬)의 상황이라는 말이군.
② 전화위복(轉禍爲福)의 양상이 잘 드러나 있군.
③ 오리무중(五里霧中)이라더니 바로 그 상태로군.
④ 새옹지마(塞翁之馬)라는 말이 딱 들어맞을 것 같군.
⑤ 남부여대(男負女戴)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군.

[48～5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유럽에서 1455년 금속활자 인쇄술이 생겨나기 이전의 책은 주로 필경사들의 고단하고 지루한 필사 작업을 통해서 제작되었다. 당시의 책은 고위층이 아니면 소유하거나 접근하기 힘든 대상이었다. 그러나 인쇄술의 보급 이후 반세기 동안에 유럽인들은 무려 천만 권이 넘는 서적을 손에 쥘 수 있었다. 유럽 사회를 근대 사회로 탈바꿈하게 한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도 이 기술의 보급이 아니었다면 (㉠)(으)로 끝나고 말았으리라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평가이다. 지난 1천 년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었던 발명으로 간주되고 있는 이 금속활자 인쇄술은 어떻게 발명된 것일까?

금속활자 인쇄술을 고안하고 실용화하는 데 성공한 사람은 독일의 구텐베르크(Gutenberg)로 알려져 있다. 구텐베르크는 귀족 출신이었으나 금속 공예에 종사한 기술자이기도 했고, 자신이 고안한 인쇄 기술을 상업화한 상인이기도 했다. 역사적으로 성공한 모든 기술들이 그렇듯이 구텐베르크의 인쇄술도 서적을 인쇄하는 데 필요한 인쇄 시스템 전체를 구성하는 기술적 요소들이 충족됨으로써 가능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기술은 필요한 활자를 손쉽게 복제해서 제작할 수 있는 기술과 인쇄 상태를 우수하게 유지하면서 대량으로 인쇄해 낼 수 있는 기술이었다.

우선 활자를 복제하는 기술은 펀치와 모형, 그리고 수동주조기라고 불리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작고 뾰족하며 강한 금속 조각에 줄이나 끌로 문자를 볼록하게 돋을새김을 하는데, 이것을 일명 '펀치'라고 한다. 이 펀치에 연한 금속 조각을 올려놓고 두드려 각인을 해서 모형을 만든다. 수동 주조기에 이 모형을 장착하여 손쉽고 빠르게 활자를 주조해 내었다. 이 기술은 인쇄를 많이 하면 활자가 닳아서 쓸모가 없어지더라도 계속해서 필요한 활자를 쉽고 빠르게 주조해 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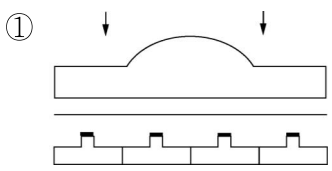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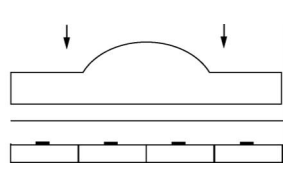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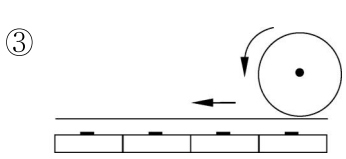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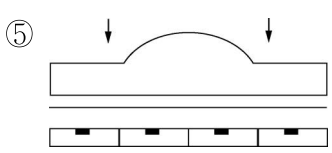
[A] 인쇄 상태를 우수하게 유지하면서 대량으로 찍어 내는 기술은 '프레스'라 불리는 압축기의 고안으로 해결되었다. 구텐베르크가 고안한 프레스는 오밀조밀하고 울퉁불퉁한 활판의 전면에 균일한 압력을 동시에 가해 종이에 찍어내는 압축기를 말한다. 이것은 고대부터 쓰이던 포도주의 압착기를 변형하여 만들어 낸 것이다. 그밖에도 램프 그을음과 아마씨 기름을 혼합한 새로운 잉크의 개발, 주석과 납 그리고 안티몬 등을 합성한 내구성 있는 활자의 개발, 그리고 압축기의 압력에도 견디고 잉크도 적당하게 먹는 종이의 개발 등이 어우러져 하나의 인쇄 시스템이 탄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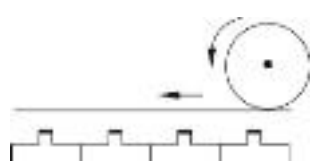
그런데 놀랄 만한 것은 이러한 기술이 대단히 짧은 기간에 구축되었다는 점이다. 이보다 앞선 시기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인쇄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우리나라의 경우 위와 비슷한 수준의 기술을 완성하는 데 무려 200여 년의 세월이 걸렸다. 1234년의 동활자(銅活字) 인쇄,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으로 공인된 1377년의 직지심경을 거쳐 1434년 세종 때 갑인자 금속활자 인쇄가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구텐베르크는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기술을 완성해 냈다. 금속활자 인쇄술에 대한 노하우가 전무했던 유럽의 상황에서 이는 실로 불가사의에 가까운 것이었다.

48.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대량 인쇄 기술은 '프레스'라 불리는 압축기의 고안으로 해결되었다.
② 구텐베르크의 발명 이전에는 부유층이 아니면 책을 접하기 어려웠다.
③ 책을 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기술은 활자 제작 기술과 대량 인쇄 기술이다.
④ 세종 대의 갑인자 이전에 유럽은 이미 금속활자 인쇄술에 대한 노하우가 있었다.
⑤ 구텐베르크는 활자의 모형을 만들어서 활자를 손쉽고 빠르게 대량으로 주조하였다.

49. [A]를 바탕으로 구텐베르크 인쇄술의 원리를 적절하게 표현한 것은? [1점]

① 
② 
③ 
⑤ 



50. 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한 진술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인쇄 기술의 영향 → 새로운 기술은 사회의 변혁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② 인쇄 시스템의 탄생 → 개별적인 기술이 유기적으로 운용될 때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
③ 포도주 압착기를 변형시킴 → 기존에 있던 기술이 새로운 영역의 기술에 응용되기도 한다.
④ 금속 조각에 문자를 새김 → 기술은 인공을 가미해 새롭게 사물을 만들어 내는 능력에 해당한다.
⑤ 단기간에 금속 활자 인쇄술이 완성됨 → 신속한 기술의 발전은 외래의 선진 기술 도입을 통해 이루어진다.

51. ㉠에 들어갈 비유적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① 찻잔 속의 태풍
② 온실 속의 화초
③ 트로이의 목마
④ 물 위의 기름
⑤ 속 빈 강정

로그인/회원가입 필요없는 학습자료 무료제공 사이트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52～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삼월 초순 어느 날 해질 무렵 — 꽃이 피기에 알맞은 보슬비도 화산댁(華山宅)이에게는 사뭇 쌀쌀하고도 차기만 했다.

복술이는 이제 마악 바로 이 집이라고 분명 가르쳐 줬다. 그런데도 화산댁이는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아 쭈뼛쭈뼛 기웃거리고 망설이기만 했다.

아니었다. 아무리 따지고 생각해 봐도 자기 아들이 살고 있을 여염 살림집은 아니었다.

사실 봄이면 산나물이나 뜯고 가을이면 곡식 되나 마련해서 두메서 십 리 밖, 경주가도(慶州街道) S장—(장이래야 ⓐ뜨내기 보따리 장사가 몇몇 모여드는)에 갖다 대는 것이 고작인 화산댁이로서는 높직이 쌓아 올린 블록 담이라든지, 페인트 칠한 판자문이라든지 또 그 안에 번쩍거리는 유리창문들— 이 모두가 무슨 관청— 일테면 촌에서 보는 면사무소나, 지서 같기만 했다.

—앙이지거리, 앙이고 말고 택도 없다— 화산댁이는 이렇게 중얼대면서 골목 밖을 내다 보고 눈으로 복술이를 찾는 것이었으나, 그렇지 않아도 바쁘다고 서둘던 복술이가 여태껏 거기 있을 리가 없었다.

(중략)

화산댁이는 사 년 동안을 보지 못한 막내며느리의 모습을 그렸다. 이러려니, 저렇게 생겼거니 하는 동안, 화산댁이의 망막 속에는 움직일 수 없는, 한 영상이 뿌리 깊이 박혔다. 그것은 언젠가 산소를 다녀간 김 의관네 맏며느리 바로 그대로였다. 일테면 곱다랗게 낭자를 하고, 쑥색 치마에 흰 저고리를 입었다. 옥양목 버선을 옥색 고무신에 송편처럼 달아 신고…… 그리고 한 됫베기[핸드백]를 살포시 꼈다—. (두메 사람들이 핸드백을 안 것은 김 의관네 며느리를 위시해서였다.) 그러나 그럴수록 또 마음 한구석에는 행여나 하는 불안이 없지도 않았다.

"보이소 새댁이요, 혹시 돌이[石]라는 사람 모르겠능교?"

돌이란 막내아들의 아명이었다. 문패에는 박석근(朴石根)이라고 씌였다.

"모르겠소, 그런 사람!"

유독 '겠소'에 힘을 넣은 앙칼진 소리다. ㉠화산댁이는 비로소 맘이 탁 놓였다. —그러면 그렇지— 아들 이름을 모르는 바에야 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밖에서는 잠겨지지 않는 문을 새댁이가 연신 덜커덕거리고 있는 것은 분명 화산댁이를 경계하는 것쯤 눈치 못 차릴 화산댁이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델 어떻게 간달 수도 없다.

"돌이고 쇠고 이 동네는 그런 사람 없소!"

그리고는 연신 힐끗힐끗 화산댁이를 쏘아보면서 새댁이는 골목 밖으로 걸어 나갔다. 하기야 요즘 부쩍 는 무슨 방물장수니, ⓑ동냥아치니, 얻어먹이니 하는 손버릇 사나운 늙은이들이 없지도 않기는 했다. 새댁이는 골목 밖에서 큰길로 꺾이면서 또 한 번 힐끗 돌아보았다. 화산댁이는 그 자리에 더 서 있을 수가 없었다.

"꼬라지갑세 누굴 도둑으로 아는가베. 아니꼬운 것……."

참말이지 두메서는 들일이 한창인 무렵이면 개나 닭들만이 남고 방문조차 열린 채 마을은 껍질처럼 빈다. 그래도 도둑이라고는 모르고 살아온 화산댁이는 ⓒ귀때기 새파란 젊은것의 하는 짓이 정말 아니꼽고 괘씸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욱 괘씸한 것은 복술이었다. 채 알지도 못하고 엉뚱한 남의 집을 대 주고 가 버렸으니 화산댁이는 그야말로 저문 날 길 덧든 나그네였다.

화산댁이는 큰길에 나가 보기로 했다. 도둑 혐의도 아니꼬왔지만 행여 아들을 만날까도 싶었다. 그새 아들이 지나가지나 않았을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자 화산댁이는 또 가슴이 덜컥했다. 주척주척 걸어나갔다. 그러나 채 몇 걸음 가지도 못하고 그만 길 복판에 발이 붙어 버렸다. 아들이 오고 있기 때문이었다. 대추씨 눈을 수 없이 깜박거리면서 보고 보았으나 분명 아들이었다. 화산댁이는 그만 목이 꽉 메었다. 말보담 눈물이 앞섰다. 그새 아들은 화산댁이를 비켜 서너 걸음이나 지났다. 화산댁이는 그제서야

"야야!"

아들은 힐끗이 돌아만 보고는 또 걸었다. 모르는 모양이었다.

"내다, 야야!"

화산댁이는 비로소 뒤집어 쓴 치마를 훌쩍 걷어 내렸다. 아들은 눈부터 뚱그래졌다. 화산댁이는 아들 앞으로 다가갔다. 아들은 완연히 당황해 했다. 길 아래위를 살피면서

"어짠 일인기요?"

화산댁이는 애원이나 하듯 목멘 소리로

"보고 싶어 왔다!"

아들은 잠깐 동안 뭣을 망설이고 나서

"들어갑시더!"

그리고는 앞을 서서 바로 아깟번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중략)

"묵어 바라, 꿀밤[도토리] 떡이다. 급히 하느라고 진도 덜 빠진 거로 해 노니 좀 딴딴하다만……."

그러고는 한 덩이를 떼서 손녀를 주었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을 대지 않는다.

"얘[아들]가 하도 질긴다 싶어 해왔다. 벨 맛은 없어도 귀한 기니 묵어 봐라!"

며느리는 힐끗하고 궁둥이만 달싹했을 뿐이었고, 아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한번 씹어보던 손녀도 그만 페페하고는 도로 갖다 놓는다. 그러자 아들이,

"저 방에 자리해라. 엄마 곤하겠다."

"괜찮다. 벌써 잠이 오나!"

"일찍이 자소!"

이래서 화산댁이는 몇 해를 두고 벼른 아들네 집이었고 밤을 새워도 모자랄 쌓이고 쌓인 이야기를 할 사이도 경황도 없었다.

후끈후끈한 방에서 곤하면 입은 채 굴러 자던 습관은, 휘높은 판자 천장이며, 유리 바른 문이며, 싸늘해 보이는 횟가루 벽이며, 다다미방이 잠을 설레었다. 화산댁이는 자꾸만 쓸쓸했다. 뭣을 쥐었다가 놓친 것처럼 마음이 허전했다. —자식도 강보에 자식이지 쯧쯧— 돌아눕는다. 건넛방에서는 아직도 소곤소곤 이야기가 들려왔다.

—저거[자기들] 좋으면 그만이지— 또 고쳐 누웠다. 애써 잠을 청해 본다. 그러나 잠 대신 화산댁이는 어느새 오리나무 숲 사이로 황토 고갯길을 넘고 있다.

보리밭이 곧 마당인 낡은 초가집이다.

빈대 피가 댓잎처럼 긁힌 토벽, 메주 뜨는 냄새가 코를 찌르는 갈자리 방에 ⓓ아랫도리를 벗은 손자들이 제멋대로 자고, 쑥물 사발을 옆에 놓고 짚신을 삼고 있는 맏아들, 갈퀴손으로 ⓔ누더기를 깁고 있는 맏며느리, 화산댁이는 그만 당장이라도 뛰어가고 싶다. 아들의 등을 쓰다듬어 기침을 내려주고, 며느리와 ㉮무르팍을 맞대고 실컷 울고 나면 가슴이 좀 후련해질 것만 같았다. 또 뒤쳐 눕는다.

– 오영수, '화산댁(華山宅)이'

로그인/회원가입 필요없는 학습자료 무료제공 사이트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52. 위 글을 감상하는 과정에서 독자 입장에서 제기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비[雨]'가 내리는 배경의 설정은 어머니가 곧 당면하게 될 난처한 처지를 암시하는 효과가 있는 게 아닐까?
② 높은 담벽을 가진 집과 보리밭이 곧 마당인 낡은 초가집이라는 공간의 대비를 통해 보여 주고자 한 것이 무엇일까?
③ 남편의 아명을 알면서도 노인 앞에서 모른 척한 새댁의 행동을 통해 도시인의 비정함을 드러내려 한 게 아닐까?
④ 손녀가 꿀밤 떡을 먹지 않고 할머니 앞에서 뱉는 시늉을 하는 장면을 설정하여 얻고자 한 효과는 무엇일까?
⑤ 잠을 청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고갯길을 넘고 있는 화산댁이의 상상은 주제 형상화에 이바지하는 게 아닐까?

53. ㉠의 순간에 스쳐 지나갔을 '화산댁이'의 생각의 흐름을 추리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① 낯설지만 아들네 집인 것으로 추측함 → 문패를 보고 제대로 집을 찾아왔다며 안도함
② 집이 너무도 낯설어서 불안해 함 → 이 집이 아들네 집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안도감을 느낌
③ 핸드백을 들었던 며느리의 예전 모습을 회상함 → 아들은 며느리 덕분에 성공했을 것이라며 행복해 함
④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해 부끄러워 함 → 며느리도 느꼈을 부끄러움을 자신이 먼저 면하게 해줘 다행이라 여김
⑤ 난처한 현재 상황을 어떻게 피할까 생각함 → 새댁이 자신의 아들을 모른다고 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함

54. <보기>를 참고하여 '화산댁이'와 비슷한 성격의 인물 유형에 관해 탐구해 본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오영수의 단편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

○ 〈요람기(搖籃記)〉의 '**소년**'은 산간 마을에 살면서 토속적인 생활을 즐기며 꿈과 소망을 키워 나가는 인물이다.
○ 〈메아리〉의 젊은 '**동욱 내외**'는 도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패배를 맛본 뒤 산으로 들어가 밭을 일구며 살아간다.
○ 〈후조(候鳥)〉의 순박한 '**구칠**'이는 마치 후조[철새]처럼 각박한 현실 속에서 이리저리 생활 터전을 떠돌아다니는 인물이다.
○ 〈갯마을〉의 '**해순**'은 '상수'와 재혼을 하여 깊은 산골에 들어가 콩밭을 매면서도 늘 자신이 살았던 갯마을을 그리워한다.
○ 〈박학도(朴學道)〉의 '**학도**'는 순박한 인물로서 거친 세파에 상처를 입으면서도 남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인다.

① '화산댁이'는 토속적인 삶을 편하게 여긴다는 점에서 '소년'과 유사하다.
② '화산댁이'는 도시적 공간을 거북스럽게 느낀다는 점에서 '동욱 내외'와 유사하다.
③ '화산댁이'는 기껏 아들집에 찾아왔다가 금방 돌아가려고 한다는 점에서 '구칠'이와 유사하다.
④ '화산댁이'는 아들집에 누워서도 시골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점에서 '해순'과 유사하다.
⑤ '화산댁이'는 아들집에 왔다가 서운함을 느끼면서도 아들 내외를 탓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학도'와 유사하다.

55. 위 글과 <보기>에 각각 나타나는 '아들'의 태도를 분석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당신, 어젯밤 어머니 말씀에 그렇게밖에 응대해 드릴 방법이 없었어요?"

오늘 아침 아내는 마당가로 세숫물을 떠 들고 나왔다가 낮은 소리로 추궁을 해 왔다. 그때 나는 아내에게 그저 쓸데없는 참견 말라는 듯 눈매를 잔뜩 깎아 떠 보였었다. 아내는 그러는 나를 차라리 경멸조로 나무랐다.

"당신은 참 엉뚱한 데서 독해요. 늙은 노인네가 가엾지도 않으세요. 말씀이라도 좀더 따뜻하게 위로를 드릴 수 있었을 텐데 말예요."

아내도 분명 노인의 말뜻을 알아듣고 있었다. 그리고 나보다도 노인의 일을 걱정하고 있었다. 노인에 대한 나의 속마음도 속속들이 모두 읽고 있는 게 당연했다. 내일 아침으로 서둘러 서울로 되돌아가겠노라는 나의 결정에 아내가 은근히 분개하고 나선 것도 그런 사연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 이청준, '눈길'

	위 글	<보기>
①	어머니가 보여 주는 정을 외면해 버리는 아들	어머니에게 매정하게 대하는 아들
②	어머니를 소외시켜 떠나게 하려는 아들	어머니를 원망하고 곁을 떠나가려는 아들
③	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아들	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는 아들
④	어머니와 세대 차이를 느끼고 고민하는 아들	어머니를 봉양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아들
⑤	어머니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아들	어머니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자책하는 아들

56. ㉮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어휘 학습을 진행하였다. ( ) 안에 들어가기에 알맞은 것은? [1점]

1단계 (확인하기)	'무르팍'은 '무릎(어근) + -악(접사)'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함
↓	
2단계 (뜻 찾기)	'무르팍'은 '무릎'을 속되게 이르는 말임을 앎
↓	
3단계 (예 찾기)	어근 뒤에 붙어서 앞말을 속되게 이르는 뜻이 더해진 단어의 예에는 '가슴팍', '( )' 등이 있음을 앎

① ⓐ : 뜨내기 ② ⓑ : 동냥아치 ③ ⓒ : 귀때기
④ ⓓ : 아랫도리 ⑤ ⓔ : 누더기

로그인/회원가입 필요없는 학습자료 무료제공 사이트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57～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자 발달의 역사를 살펴보면, 문자의 모양과 필서 방법은 당시에 쓰였던 필기도구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양피지에 긁어 썼을 때의 글자 모양과 파피루스에 그려 넣었을 때의 모양, 그리고 돌기둥에 새겨 넣었을 때의 모양, 종이 위에 붓으로 썼을 때의 모양이 각각 달랐던 것은 필기도구의 변화가 글자의 형태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오늘에 이르러서는 종이와 연필 같은 전통적인 필기도구가 컴퓨터라는 새로운 매체로 대체되고 있다. 컴퓨터는 종래의 필기도구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컴퓨터 자체가 필기도구인 동시에 필기의 공간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과거의 종이와 연필, 혹은 양피지와 펜으로 나뉘었던, 문자가 쓰이는 공간과 문자를 쓰는 도구와의 구분이 컴퓨터에 이르면 모호해진다. 결국 무엇을 가지고 어디에 쓴다는 식으로 필기 수단을 두 부류로 나누어 인식하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의식이 도구를 변화시킨 것인가, 아니면 도구가 의식을 변화시킨 것인가? 필기도구의 변화는 단지 글자의 모양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다. 때로는 그 변화가 표기법이나 글쓰기의 사회적인 규범 자체를 흔들기도 한다.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인터넷 글쓰기에서 나타나는 규범의 혼란도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식 변화로 나타난 현상이라기보다는, 새로운 매체로 등장한 컴퓨터의 강력한 영향으로 생겨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A] 특히 인터넷 채팅 글쓰기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겹받침을 생략하거나 발음대로 쓰려는 표기 방식은 특별한 의식의 반영이기보다는 컴퓨터라는 매체를 이용한 표기 방식의 한 형태이다. 쉽게 말하면, 소리 나는 대로 적어도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면 굳이 쉬프트(shift) 키를 누르는 번거로운 수고를 하지 않겠다는 의도의 반영이다. 어쨌든 빨리 입력해야 하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서 축약의 형태를 즐겨 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욱이 자신이 쓴 내용은 바로바로 상대방에게 전달되고 또 바로 회신이 오는 즉각적인 상황이므로 컴퓨터 글쓰기에서는 머뭇거릴 여유를 가질 수가 없다. 현대의 또 다른 문화인 휴대 전화 문자 메시지의 경우도 비슷한 사례이다. 한정된 액정 화면 안에 의미를 담아내야 하는 휴대 전화의 특성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의사를 되도록 짧게 표현하는 방법에 익숙해지게 하였고, 그 결과 과감하게 축약하거나 띄어쓰기에 구속되지 않는 등 자유롭게 문장을 작성하는 표기 문화를 만들어 내었다.

새로운 문화적 현상을 창출하고 있는 이 현대의 언어 표기가 문제가 되는 것은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 소리 나는 대로 적다 보니 맞춤법 규범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말을 적는 가장 자연스럽고 편안한 표기 형태는 소리 나는 대로 적거나 이어적기 형태를 취하는 것이다. 어간과 어미, 체언과 조사를 엄격하게 구별하여 적는 원칙은 음소주의나 이어적기 표기보다는 매우 의식적인 표기법이다. 그러나 ㉡근대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줄곧 끊어적기 표기를 주된 표기 원칙으로 고수하여 왔다. 현재 모든 교과서와 공식적인 출판물은 엄격한 형태주의를 반영하고 있다. 그런 전통적인 규범이 현대 사회에서 새로운 필기 매체를 만나 옷을 갈아입고 있는 셈이다. 결국 표기법도 그 사회의 문화적 특성과 유리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57. 위 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1점]

① 여러 관점의 이론을 비교하며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② 현상을 제시한 뒤 그 원인을 분석하며 이해를 돕고 있다.
③ 가설을 제시하고 구체적 자료를 통하여 이를 검증하고 있다.
④ 대립되는 주장을 소개한 다음 이를 절충하여 마무리하고 있다.
⑤ 추상적인 내용을 익숙한 경험에 비유하며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58. <보기>의 글쓴이가 비유를 활용하여 ㉠에 대해 비판적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말을 하거나 글을 쓴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말과 글은 그 안에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말과 글의 사용법은 그것을 쓰는 사람의 인식 수준이나 인격에 대한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 우리가 규범에 맞는 언어 생활을 해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① 조금 빨리 가자고 신호를 위반하거나 과속으로 운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②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노부모를 부양하는 청년에게 국방의 의무를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③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적 장치는 필요하지만 사형 제도가 과연 그 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까?
④ 직업을 선택할 때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시한다면 과연 보람 있는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⑤ 사람을 평가할 때 외모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 사회적 분위기가 성형 수술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59. [A]와 <보기> 자료를 함께 읽고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점]

〈 보 기 〉

:사룸:마ㆍ다 :힉ㆍ쎠 :수ㆍ빙 니ㆍ겨 ㆍ날ㆍ로 ㆍ뿌ㆍ메 便뼌安한ㆍ킈 ᄒᆞㆍ고ㆍ져 홇 ᄯᅳᄅᆞㆍ미니ㆍ라.

※'수빙'의 변천 과정
쉽(어근) + 이(부사파생접사) ⇒ 쉬빙 > 수빙 > 수이 > 쉬

① 의도적으로 규범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군.
② 가급적 간소화하여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군.
③ 점차 개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군.
④ 모든 경우에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려 하였군.
⑤ 정확한 의미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는군.

60. ㉡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ㄲㅗㅊ'이라고 쓰는 것보다는 '꽃'이라고 쓰는 것이 시각적인 집중성을 높인다.
② '반드시'와 '반듯이'는 구별해서 표기해야만 그 의미를 정확하게 변별할 수 있다.
③ 'ㅅㅏㄹㅏㅇ'이라고 쓰는 것보다 '사랑'이라고 쓰는 것이 공간 활용에 훨씬 유리하다.
④ '띄어쓰기'를 통해 낱말의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 전달이 효과적이다.
⑤ '읽기'보다는 '쓰기'의 속도를 높임으로써 정보 전달의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 확인 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로그인/회원가입 필요없는 학습자료 무료제공 사이트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